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4. 7. 30.

한국산업위생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협회지(2024-Vol.2 여름호) 발간 안내



2024-Vol. 2 여름호 e-book

한국산업위생협회의 협회지(2024-Vol.1 여름호)/ISSN 2983-368X가 발간되어 안내드립니다.

한국산업위생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소식-KOHA 협회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kohma23.iwinv.net/202402/>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 2)산업보건증서사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1)지원대상 :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정부·국회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차관, 폭염 취약 현장 점검에 나서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4일(목) 오후 7시, CJ대한통운(주) 군포허브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CJ대한통운의 군포허브물류센터는 주로 택배물품을 분류 출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에는 온열질환 민감군인 고령자 등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서 김민석 차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 시원한 물은 제공하고 있는지, 에어컨·제트팬 등 냉방·환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휴게시설 및 휴식시간은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건강관리실을 방문하여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 관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키트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로부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작업을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도중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moel.go.kr\)](http://moel.go.kr)

덥고습한여름철, 고열(高熱) 사업장은 더욱 철저히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실시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합동 현장 점검
 - 온열질환과 장마철 침수·감전 사고 예방조치, 외국인 작업 환경 등 살펴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월 16일(화) 15:00, 주물공정을 거쳐 알루미늄 고 등을 생산하는 인천 서구 소재 중소 제조기업을 방문해 범부처 차원에서 폭염 및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물제조 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공정은 고열(高熱)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열작업장은 ‘물·바람·휴식’ 등 실내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작업자이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나 감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사업장들은 기상특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평소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이정식 장관과 오영주 장관은 고열의 주물제조시설과 근로자 휴게시설, 외국인 기숙사 등을 점검하고, 대표이사 및 현장 근로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건강 보호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덥고습한여름철, 고열\(高熱\) 사업장은 더욱 철저히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실시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 \(moel.go.kr\)](http://moel.go.kr)

장마철 건설현장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니다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 7월 12일 건설현장 합동 점검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7월 12일(금) 10:00, 서울 소재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서의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구조물 붕괴, 현장 침수 등의 재해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정식 장관과 박상우 장관은 현장에서 ①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현황과 ②태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③붕괴·침수 등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는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장의 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장마철 건설현장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니다 | 고용노동부 \(moel.go.kr\)](#)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 온열질환 및 침수·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수)에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 및 공단 직원이 직접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지역별로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이행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붕괴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복구과정 및 작업재개 전에 안전조치 및 ‘호우 복구 지원팀’을 통한 기술지도를 적극 안내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년 강수량을 넘어섰고, 폭염도 작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사업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 \(moel.go.kr\)](#)

안전보건공단

「2024 바이오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 반도체·자동차·통신·철강업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바이오업종 개최
-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7.24.(수) 14시 송도컨벤시아 306호 회의장(인천 연수구)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2024 바이오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반도체, 자동차, 통신, 철강 업종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협력업체 등 44개사 종사자와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바이오산업은 디지털·나노소재·물리·화학 등 여러 기술과 융합하여 제조·보건·의료·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산업이다. 화학물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료 분말을 투입하거나 여과·세척하는 과정 등에서 폭발, 화상 등의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이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역내 제조역량 강화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공급망 위험의 주기적인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조규선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단층의 격벽으로 분리된 셀 형태의 단위 생산공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원료나 제품은 점화원이 없는 창고동에 보관하여 생산동에는 최소한만 보관하는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하 생략-

주간 사망사고 속보

- [7/1, 경북 상주시] 고소작업차 버킷에 탑승하여 통신선 철거 작업 중 떨어짐
- [6/28, 경기 광주시] 화물차량 위에서 적재물에 로프를 묶던 중 바닥으로 떨어짐
- [7/5, 경기 용인시] 경사로에서 굴삭기가 넘어지며 건설자재와 부딪힘
- [7/5, 경기 성남시]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절단 작업 중 떨어짐
- [7/8, 경남 창원군] 양중된 철판 아래에서 도색 작업 중 철판에 깔림
- [7/8, 경남 함안군] 가동 중인 섬유 조합기 청소 중 끼임
- [7/8, 경남 김해시] 코일이 쓰러지며 깔림
- [7/2, 제주 제주시] 굴착지 측면이 붕괴되며 매몰됨
- [7/5, 부산 사하구] 철골구조물 설치작업 중 떨어짐
- [7/8, 충남 천안시] 인쇄기 청소작업 중 기계에 끼임
- [7/7, 경북 영덕군] 옥상 캐노피 상부에 올라가 작업 중 옥상 바닥으로 떨어짐
- [2/3, 경남 김해시] 크레인으로 구조물 인양작업 중 인양고리가 풀리면서 튀어 맞음
- [7/4, 서울 광진구] 자재 인양 중 와이어가 파단되어 하부에 있던 재해자가 맞음
- [7/14, 충북 옥천군] 지붕 상부에서 채광창 교체 작업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져 떨어짐
- [7/14, 경기 시흥시] 탱크 절단 작업 중 주변 굴착기 후면과 탱크 사이에 끼임
- [7/9, 전남 광양시] 산소호스가 연결된 에어자켓에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
- [7/11, 부산 서구] 선박 엔진 내부 청소작업 중 엔진이 갑자기 가동되어 끼임
- [7/15, 경남 창원시] 선박엔진 블록 구조물 취부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지며 깔림
- [7/11, 경기 김포시]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중 가용점된 들고리(러그)가 파단되어 맞음
- [7/11, 경남 양산시] 재활용품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서 떨어짐
- [7/16, 경기 성남시] 쓰레기 반출 작업 중 건축물 붕괴로 매몰
- [7/17, 서울 용산구] 지하철 역사 내 환풍구 내부에서 전등 설치 및 결선 작업 중 감전
- [6/29, 경기 수원시] 실외기 설치 작업 중 떨어짐
- [7/2, 광주 광산구] 실고있던 자재가 무너지며 맞음
- [7/16, 충북 음성군] 철거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
- [7/19, 서울 강남구] 외줄비계 강관 해체작업 중 떨어짐
- [7/15, 경남 거창군] 사다리에 올라가 비상등 설치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
- [7/22, 전북 무안군] 창고 내 톱백이 무너지며 하부에서 정리 작업 중인 재해자가 깔림
- [7/24, 경기 파주시] 줄걸이 해체 작업 중 떨어짐
- [7/25, 부산 사하구] 산업용 로봇 점검 작업 중 끼임
- [7/24, 경기 시흥시] 분전반 케이블 인식표 교체 작업 중 감전
- [7/26, 전남 무안군] 터널 강지보재 설치 작업 중 부석에 맞음
- [7/27, 충북 제천시] 철골 기둥 설치 작업 중 떨어짐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2024 바이오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 고용노동부 \(moel.go.kr\)](https://moel.go.kr)

웹툰으로 안전일터 꿈꿔요!

오이레터

- 웹툰 공모전 수상작 공개 ... 대상작 '100점의 사나이' 등 6편

- 공단 및 공모전 누리집, 유명 웹툰 플랫폼으로 제공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7.26.(금) 「2024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6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웹툰 공모전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보편적인 콘텐츠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웹툰 공모전은 공단과 종합콘텐츠 기업인 CJ ENM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6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활용성 및 대중성 ▲주제 적합성 ▲작품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손민지의 '100점의 사나이', 최우수상에 서창덕의 '산재루프(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류지한의 '눈덩이', 우수상에 이연지의 '행복한 동화나라의 재해'와 라혜은의 '산업안전 마법소녀:토끼와 거북이', 임윤정의 '안전계'가 선정됐다.

대상작인 '100점의 사나이'는 건설현장에서 쉽게 간과되는 안전수칙을 근로자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설 현장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현장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 구성, 그리고 생동감 있는 그림이 잘 어울려진 작품이다. 전체 심사위원들은 대상작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산업안전" 주제를 흥미롭고 진솔하게 풀어냈다고 호평했다.

-이하 생략-

스트레스는 어떻게 인지되고, 해결되는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의 의미

최초에 원호 대사가 해골물을 마실 때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요인이 제대로 지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각 단계에서 바가지에 담긴 물이라고 착각(Misperception)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1차 평가도 위협적으로 인식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각되지 않은 스트레스 요인은 스트레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지각이 일어났습니다. 해골에 담겨있는 물임을 지각-인지하고,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평가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1차 평가입니다. 여기서 한 차례 스트레스 반응이 발생합니다.

더러운 것을 먹었다는 1차 평가의 결과를 기반으로 2차 평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2차 평가입니다.

그리고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구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처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이것은 '문제 중심'의 대처입니다.

하지만 구역질이 올라오다가 왜 지금까지 괜찮았는지를 떠올리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것은 재평가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인 해골물이 '더러운 것'에서 '마음먹기에 달린 것'으로 재평가됩니다. 스트레스 요인인 해골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킨 것이므로 이것은 '감정 중심'의 대처가 됩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게시판읽기 \(웹툰으로 안전일터 꿈꿔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http://stibee.com)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게시판읽기 \(웹툰으로 안전일터 꿈꿔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http://stibee.com)

프랑스의 근로자건강검진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특수건강진단과 보건관리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합보건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고민이 있어 프랑스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근로자 건강검진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우리나라의 일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프랑스의 검진은 무엇일까요? 프랑스에서는 정보 및 예방 검진(visite d'information et de prévention)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법 R.4624-16조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후 첫 건강검진을 받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재검진을 받습니다.

야간근무자, 장애인의 경우는 노동법 R.4624-17조에 따라 3년이 초과하기 전에 재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검진주기는 매년 검진을 받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긴 주기입니다. 프랑스의 일반건강진단은 회사의 직업보건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직업보건서비스기관을 통해 시행합니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목적은?

-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
-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들을 근로자에게 고지
- 실행 가능한 예방법을 알림
- 직업의사(Médecin du travail)*에게 진찰받아야 할 필요성을 확인
- 요청이 시 직업의사에게 진단받을 수 있음을 고지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프랑스의 근로자건강검진 \(stibee.com\)](http://stibee.com)

[예술과 직업건강 탐구] 밤새는 사람들(Nighthawks)

야간교대근무의 고립감

야간교대근무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보면, 고독과 소외, 피로와 단조로움 같은 주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야간교대 근무자는 일반적인 사회 활동과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자 고립된 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는 야간 근무자들이 느끼는 고독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특별한 활동 없이 그저 앉아 있을 뿐이며 그들의 일상이 단조롭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야간교대 근무는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쳐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느릿한 자세는 야간 근무자들이 느끼는 신체적 피로와 무기력을 반영합니다. 야간 근무는 인공조명 아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 속 밝은 조명은 야간근무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조명은 배경과 대비를 이루면서 역설적으로 인물들의 고립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정" 야간근무(permanent/ fixed-night work)는 "순환" 교대근무(rotating shift work) 시스템보다 생체 리듬 조정(circadian adjustment)이 용이하여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고정" 야간근무 시스템 도입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교대제의 업무 과중으로 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면서,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예술과 직업건강 탐구\] 밤새는 사람들\(Nighthawks\) \(stibee.com\)](http://stibee.com)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지난달 6월에 이미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기록적인 더위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비웃기하도 하듯, 폭우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엄청난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지요. 이달 초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덮쳐 전국에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의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의 상층과 하층 기온 차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의 정의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날씨 현상을 “기상 현상”이라 부르고, 이와 같은 기상현상들의 긴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 합니다. 기후는 수개월에서 수천 또는 수백만 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과 변동성 같은 통계적인 개념이 포함됩니다.

기후의 상태를 결정하는 기후체계는 대기, 수권, 빙권, 암석권, 생물권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기후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며, 보통 몇 십년 이상 지속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기후를 변화시키는 자연적인 요인에는 태양 흑점 수 변화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공전궤도, 화산폭발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원인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꼽히며, 토지이용도 변화 및 산림파괴로 인해 지표면 반사율 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산업화 시대 이후,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전 지구 평균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1850-1900년 대비 섭씨 1.09도의 지표면 온도 상승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stibee.com\)](http://stibee.com)